



유혜경 TI 한국지부 반도체 영업부장, 유희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와 박현욱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장(왼쪽부터)이 지난 21일 TI랩 현판식을 개최했다.

‘뇌 닮은 CPU’ 개발 첫단추 유희준 KAIST 교수팀 TI랩 선정 현판식

대전 = 박희범 기자
hbpark@etnews.co.kr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유희준 교수 연구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랩으로 최근 선정돼 차

세대 CPU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종합 반도체 생산업체인 TI는 유희준 교수 연구실 측과 ‘사람의 뇌를 모방한 매니코어 프로세서 칩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 TI 랩 선정 현판식

을 개최했다.

매니코어 프로세서는 10개 이상의 코어를 탑재해 만든 프로세서로 싱글코어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유희준 교수는 “최근 하나의 칩에 수십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집적하는 미래형 CPU가 인텔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며 “인텔 기술을 뛰어 넘는 새로운 CPU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 측 연구진은 이미 적은 면적에 계산 속도가 뛰어난 아날로그 회로와 전력 소모가 낮고 정밀도가 높은 디지털 회로를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혼합형 회로를 통해 인체의 뇌를 모방하는 신경 회로망을 설계,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로봇 및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